

NEWS 뉴스탐험대

“소이증 보청기도 보험 지원해 주세요” 청각장애인 위한 법 제정 나선 미국 초등생

미국 초등학교생 엘리 텀블린(11)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험 혜택 마련에 앞장섰다. CNN 방송 등 현지 언론은 “엘리의 이름을 딴 ‘엘리 법’이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엘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희소 질환인 소이증을 앓았다. 귓바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질병으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BAHA라는 보청기를 착용해야 한다. 문제는 이 장치가 최대 1만2000달러(약 1300만 원)로 환자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 보험 혜택도 받기 어려웠다. 대부분 보험 회사에는 소이증 환자를 위한 상품이 없었다. 엘리는 조 네거스 콜로라도주(州) 하원 의원에게 편지를 썼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 BAHA가 꼭 필요한 어린이와 어른 수천 명이 있다”며 “보험과 같은 지원이 절실하다”는 내용이었다. 네거스 의원은 지난달 ‘엘리 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보험 회사는 소이증 환자의 달팽이관 이식 수술, 보청기 구매 등을 지원한다. 엘리는 “빨리 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아이는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쌓인 신문 보고… 할머니 구한 英 신문배달원

영국 신문배달원의 작은 관심이 혼자 사는 할머니의 생명을 구했다. 데일리메일은 15일(현지 시각) 영국 켄트주(州)에서 신문 배달을 하는 로버트 퍼트(18)의 선행을 보도했다. 여느 때와 같이 신문을 배달하던 그는 한 집 앞 우편함에 3일치 신문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88세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이었다. 퍼트는 문득 안 좋은 예감이 들었고, 담당 신문 보급소에 전화해 상황을 알렸다. 보급소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할머니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퍼트는 데일리메일 인터뷰에서 “우편함에 쌓인 편지나 신문 등 아주 작은 것들도 눈여겨본다면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짜주는 시간표를 따르는 대신,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 개별 시간표를 짤 수 있다. 정해진 학점(192학점)을 채우면 졸업이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일반계고에서도 학생이 원한다면 특수목적고 수준의 심화·전문 과목이나 직업 계열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활용해 들을 수 있다. 교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가 직접 학생을 가르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지은 기자

국내 최초 필적학자 구분진 변호사

1면에서 계속

어린이들은 어떤 글씨를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예쁘거나 멋있다고 모두 좋은 글씨체는 아니니, 각자가 원하는 모습에 맞춰 글씨를 바꿔보세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어린이라면 글자 간격을 일정하게 두려고 노력해보세요. 적극적인 리더가 되고 싶다면 큼직큼직하게,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 모나지 않게 쓰는 게 좋아요. 정사각형에 맞게 반듯한 글씨를 연습하는 것도 추천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성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죠. 하루에 20분씩 6주 동안 꾸준히 연습한다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참신하고 풍성한 글솜씨 뽐낸 어린이는?

2020년 문예상 최고상에 산문 ‘민다연’·동시 ‘황은찬’ 수상

전국 어린이 작가들의 글솜씨 경연장인 어린이조선일보 문예상의 2020학년도 최고상 수상자로 민다연(충북 충주 국원초 졸업·산문) 양과 황은찬(경기 남양주 셋별초 3·동시) 군이 선정됐다.

어린이조선일보는 매달 초등학교생이 응모한 작품 가운데 산문·동시 부문에서 각각 수상작(특선·佳作·입선)을 뽑는다. 최고상은 지난 1년간 문예상 특선에 오른 작품 24편(산문·동시 각 12편) 중 2편(부문별 1편)에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문인화 동화 작가와 박혜선 시인이 각각 산문과 동시 부문 심사를 맡아 ▲풍성한 표현력 ▲구성의 짜임새 ▲문장의 간결함 ▲어린이다운 참신한 발상 등을 살펴 수상작을 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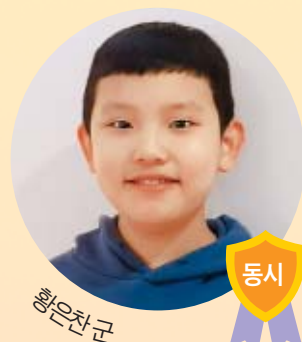
산문 부문 최고상은 민다연 양의 ‘내게 온 행운’(9월 특선)이 차지했다. 민 양은 행사 경험으로 받은 냉장고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한 실제 경험을 따뜻한 동화로 재구성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문 작가는 “똑같은 글감이라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며 “경험을 글로 적을 때 선택하기 쉬운 수필 형식 대신 동화라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사랑을 나누고 행복은 얻은 내용으로 좋은 동화를 완성했다”고 덧붙였다. 민 양은 “앞으로 글을 쓰는 수의사가 되는 것이 꿈인데, 특선에 이어 최고상까지 받게 돼 기쁘다”며 “중학생이 되면 좋아하는 친구들을 등장인물 삼아 소설을 쓰는 게 목표”라고 했다.

황 군은 여행을 떠난 여행용 가방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 ‘캐리어’(8월 특선)로 동시 부문 최고상을 받았다. 박 시인은 “시를 읽으며 글쓴이와 함께 여행을 떠난 듯 낯선 여행지의 풍경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다”며 “코로나19 시대에 마음껏 놀러 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황 군은 “요즘 여행을 갈 수 없어서 창고에 쓸쓸하게 박혀 있는 캐리어가 안타깝게 시를 쓰게 됐다”며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캐리어와 길을 나서고 싶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최고상 작품 3편



민다연 양



황은찬 군



초식 공룡 화석이 그린란드서?... CO₂ 농도 줄어 1만km 이동 가능

남미(南米) 지역에 살던 초식 공룡 화석이 1만km 떨어진 북극해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연구진은 “적도 지역에 살던 초식 공룡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진 탓에 그린란드로 이동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ANS)에 발표했다. 브라키오사우루스 등 목이 긴 초식 공룡은 약 2억3000만 년 전 지금의 남미 대륙에 살았다. 당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재보다 약 10배 높은 4000ppm에 달했다. 연구팀은 “2억1500만 년 전부터 이산화탄소 농도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공룡의 이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질서 정연히 낮아진 날씨가 장마까지 이어져 이동이 어렵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줄면서 상대적으로 이동하기 편한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 무렵 그린란드는 따뜻한 기후로 초식동물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다. 데니스 켄트 연구원은 “지구 대륙이 바다로, 큰 산도 없이 하나로 붙은 초대륙 ‘판게아’였기 때문에 공룡이 남미에서 그린란드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게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큰 사진은 그린란드에서 발견된 초식 공룡 ‘플라테오사우루스’ 발톱 화석. 작은 사진은 초식 공룡 화석이 나온 그린란드 동부의 한 절벽.

이유진 기자



컬럼비아대학교 제공

